

하비에르 사모라(Javier Zamora)의 『나 홀로 Solito』에 드러난 증언 서사의 의미: ‘홀로 됨’의 고찰과 감각적 기억의 재현*

이 은 아

(서울대학교 교수)

◆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하비에르 사모라의 『나 홀로』가 지니는 증언 서사로서의 의미와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증언의 목적과 내용, 서사 기법을 분석한다. 회고록인 이 작품을 증언 서사의 맥락에서 조명하면서, 체험자로서 담보한 진정성과 작가로서 추구한 문학적 성취, 나아가 가족과 외로움에 대한 근원적 고찰에 천착하면서 분석한다. 특히 아이의 시점과 목소리를 채택했다는 점, 또한 증언 서사와 치유문학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감각적 재현에 충실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증언’ 문학에서 출발해 증언 ‘문학’으로 자리매김하는 방식을 살펴본다.

사모라는 회고록을 집필하면서 다각적인 성찰을 보여준다. 감각적 기억을 활용하여 어린 자아와 대면하고 이주 고통 앞에서 상상력이 발휘된 현실 해석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그는 궁극적으로 미등록 이민자로서의 자아, 중앙아메리카계 이민 가족, 라티노 공동체, 나아가 미국 사회와의 화해를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작가는 감각적 기억을 사실적·상상적 방식으로 복원함으로써 이주를 둘러싼 사회적·역사적 현실과 정서적·심리적 세계를 동시에 재현하고 있다. 이러한 서사 기법은 국경의 위기를 개인적·집단적 차원에서 주제적으로 그려내는 카운터매핑(counter-mapping)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궁극적으로 이 작품은 이주 서사를 둘러싼 증언의 역할과 그 논의를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

주제어: 하비에르 사모라, 『나 홀로』, 증언 서사, 미등록 이민자, 라티노, 국경의 위기, 카운터매핑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A2A01049572).

I. 들어가며

『나 홀로 Solito』는 지난 2010년대 중미 출신 이민사에서 크게 주목받은 ‘나 홀로 이주 아동’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작품은 보호자 동반 없이 이주하는 아동의 자전적 경험을 다룬 회고록으로, 작가 하비에르 사모라(Javier Zamora)는 1999년 아홉 살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샌 라파엘에 거주하는 부모와 재회하기 위해 엘살바도르의 에라두라(Herradura)라는 도시를 출발해 과테말라, 멕시코를 거쳐 미국 국경과 사막을 가로지르는 3천 마일의 지옥 여행을 감행한다. 2017년 이 여정을 시화한 시집 『보호자 없는 여정 *Unaccompanied*』을 출판한 그는, 몇 년 후 어린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같은 경험을 산문 형식으로 발표한다. 이 글을 집필하게 된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¹⁾ 출판 이후 도리어 거세진 내적 고통에 휩싸이게 된 결과, 온전한 글쓰기를 통해 육체적 통증과 심리적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소망이 한층 강렬해진 것이다. 시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기억해 낸 고통의 시간이 뿌리 깊은 상처 일부를 헤집는 결과를 일으키면서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다다른 것이다. 또한 그는 시집에서 유년기의 혹독한 이주 체험을 축약과 은유를 통한 시어로 표현하다 보니 부득이 생겨난 모호한 일화들에 대해 질문을 자주 접하게 되자, 이에 대해 더 상세히 재현하고 싶은 욕구를 지니게 되었다. 여기에 2015년 이후 몇 년 동안 아동 난민에 관한 기사가 쏟아지면서 인도적 위기를 정확히 알려야겠다는 책무감 또한 크게 작용하게 된다.²⁾

이 작품과 연관해서 1980~90년대 중미 출신 난민 중 엘살바도르 내전의 폐해로 발생한 이주민, 2010년대 이후 급증한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미성년 이주,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둘러싼 위협과 폭력 등을 논의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라틴아메리카 경제·기후 위기로 인해 이주의 성격이 변하면서 이

1) 작가는 많은 인터뷰를 통해 이 글을 출판하게 된 동기를 설명한다. 본문의 내용은 이를 간략히 요약한 것이다.

2) 다음 기사를 참조할 것.

<https://www.theguardian.com/books/2022/sep/10/javier-zamora-solito-interview-no-w-the-chances-of-me-crossing-border-and-surviving-would-be-slim>

민 송출국과 유입국, 난민의 지위와 상황이 바뀌고 있지만, 중미와 멕시코를 관통하는 루트에는 큰 변화가 없기에 사회적 환경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³⁾

조르주 아감벤의 ‘벌거벗은 생명’으로 정의되는 이주자들이 과거 중남미 증언 서사의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하위 주체로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인권의 위기와 더불어 재현의 위기를 겪는 주체가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나 홀로』의 주인공은 증언 주체에 정확히 해당한다. 화자 사모라의 생존이 한 이주자의 손에서 또 다른 이주자의 손으로 넘어간다는 의미에서 그의 삶은 아감벤의 ‘예외상태’, 즉 국가나 사회의 보호 없이 개인적 권리가 박탈당하는 위기에 처한 상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 작품을 증언 서사의 맥락에서 조명하면서, 체험자로서 담보한 진정성과 작자로서 추구하는 문학적 성취, 나아가 외로움에 대한 근원적 고찰에 천착하면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아이의 시점과 목소리를 채택했다는 점, 증언 서사의 고유한 역할을 추구하면서 치유문학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감각적 재현에 충실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증언’ 문학에서 출발해 증언 ‘문학’으로 자리매김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작품이 보여준 미학적 특징과 작가 의식을 탐구함으로써 이 증언 문학이 지극히 보편적 인간의 문제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본다.

II. 미등록이민자와 증언 서사의 주체

미등록이민자 문제가 증언 서사의 새로운 중요 주제와 주체로 자리매김했다는 주장을 펼치기에 앞서 기존 증언 서사의 쟁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⁴⁾ 증언 서사를 둘러싼 주요 쟁점은 진정성, 하위 주체의 대표성, 정치적

3) 최근 몇 년 사이 중남미 대륙 전체의 이주 흐름에서 베네수엘라 인구나 카리브해 국가 출신 인구의 대이동이 기존 패턴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 그러나 중미와 멕시코를 관통한 후 미국에 도달하려는 기존 이주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

4) 중남미 증언 서사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카미네로 산탄헬로(Caminero Santangelo)

변화와 문학의 역할, 미학과 형식이라는 네 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 증언 서사는 80~90년대 내전 위기와 인권 탄압이 잦아들고, 발화 주체가 하위에서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학계 논의에서 서서히 주변부로 밀려나게 된다. 증언 장르를 라틴아메리카 내러티브의 고유한 형식으로 규정할 흐름은 이 장르를 서구권 독자에게 소개하고 비판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나름 유효했지만, 작가의 권위, 미학적 효과, 재현의 진실성을 둘러싼 논쟁은 역설적이게도 이 장르를 학계 논의로 제한하는 역효과를 초래했다.

이런 비생산적인 학문적 논쟁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서술 기법과 미학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 또한 시도되었다. 알베르토 모레이라스(Alberto Moreiras)는 문학적 성취도를 고양함으로써 이 장르의 유효함, 즉, 전달력과 수용력이 확대된다고 주장한다(1996:195). 이런 맥락에서 보면 중미 이주자를 재현하는 작품들에서, 저널리즘적 에세이, ‘디지털 스토리텔링’, 픽션과 논픽션을 혼합한 회고록, 온라인 저널, 증언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형식뿐 아니라, 환상, 기억, 트라우마를 아우르며 기존 작품들의 소재를 빌려 비라티노 독자들과 소통하도록 만든 문학적 장치는 증언 서사의 틀을 확장하는 데 공헌한다고 하겠다. 앞서 언급한 형식적 다양성은 증언 장르의 확장적 소통 방식과 미학적 실험으로 이해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존 베벌리(John Beverley)는 증언 서사가 사회적 불평등, 착취, 억압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역사적 기억을 어떻게 재구성하는가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지적한다. 그런데 현재의 이주민, 난민의 상황이 과거 증언 서사 연구가 활발하던 시기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까. 난민 문제는 과거 이분법적 식민-반식민 대립 구도라는 제한적 범주를 넘어서 다층적이고 복잡한 대립과 갈등의 지점을 내포하고 있다. 게다가 이 문제는 미주 내뿐만 아니라 전지구적 쟁점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집단과 주체들의 개입과 연대의 가능성 또한 동반한다. 신민족(국가)주의와 탈국가주의 흐름 속에서 비합법적 이주자, 난민의 지위에 대한 정치적 입장, 윤리적 발언에 대한 책임, 사법적 판단에 따른 사회적 반발, 실존적 고뇌 등을 둘러싸고 새로운 연대의 지점이 복잡하게 형성되거나 해체되고 있다.

의 『미등록이민자를 기록하는 일 Documenting the Undocumented』의 논의 참조할 것.

미등록이민자 특히 난민은 보호받지 못하는 하위 주체로서 “이들은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반문하게 할 정도로 공적 영역에서 자신을 드러낼 권리를 제약받고 있다. 기껏해야 외부의 시선에 의해 그들이 직면한 고통과 상황이 묘사되고 기록될 뿐이다. 따라서 “자신을 대변할 수 없는 법적 지위, 또한 공개와 은폐를 둘러싼 처벌은 이주민 정체성을 바랍직한 범주와 바랍 직하지 않은 범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지배 담론의 지표로 이해된다. 또한 저자가 활동가인 경우, 미등록이민자 삶의 증언에 대한 서사적 가능성의 범위를 제한하는 결과”(Canelo 2020)를 초래한다.

최근 미국의 미등록이민자 청년 작가들은 ‘은폐와 폭로’라는 이분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준다.⁵⁾ 이들이 스스로 미등록이민자임을 밝히기 전에는 개인의 법적 지위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들의 회고록은 엄밀히 말해 이민자 문학에 속하지 않는다. 미국은 원칙상 불법 이민자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어야 하기에 그들의 작품이 출판되어 미국 내 거주자의 목소리로 들리기 어려운 것이다.⁶⁾ 사모라 또한 어린 시절 난민의 경험을 겪고, 성인이 될 때까지 미등록이민자로 지내왔기 때문에 ‘공개와 은폐’ 사이에서 고뇌하며 발화 주체로서 억눌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불법 월경과 아동 이주의 문제를 다룬 작품들은 종종 발화 주체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이곤 한다. 증언 서사의 의미와 별개로 문학적 재현의 효과와 창작 의도 사이에 부정합성이 존재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저자의 진정성을 문제시한다. 예를 들어, 중미 아동의 이주를 사실적 묘사와 환상적 기법을 통해 재현한 『잃어버린 아이들을 위한 아카이브 *Lost Children Archive*』의 경우, 평단과 독자층의 극찬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간접 경험이라는 사실을 들어 재현의 능력을 문제 삼았다.⁷⁾ 폭력과 이주의 모티

5) 단엘 파디아 페랄타(Dan-el Padilla Peralta)의 『미등록자 *Undocumented*』, 홀리사 아르세(Julissa Arce)의 『나의 (미등록) 아메리칸드림 *My (Undocumented) American Dream*』, 호세 안토니오 바르가스(Jose Antonio Vargas)의 『디어 아메리카 *Dear America*』, 카를라 코르네호 비야비센시오(Karla Cornejo Villavicencio)의 『미등록미국인 *The Undocumented Americans*』 등의 작품은 미등록이민자의 경험, 특히 가족과의 이별이 어떤 트라우마를 남기는지 기록하고 있다.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08989575.2019.1592375>

6) <https://www.thenation.com/article/culture/javier-zamora-solito>를 참조할 것.

7) 작가의 상상력이 들어간 창작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억지스러운 비판으로 보인다.

브를 담은 『아메리칸 더트 *American Dirt*』는 소재의 시의성과 현실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부 왜곡된 사실과 정형적 표현 탓에 신랄한 비판을 받았다. 영화적 묘사와 속도감 있는 진행, 통속적 스토리와 구성으로 독자의 흥미를 유도했다는 점이 작가의 상업적 감각과 편협한 시각 때문이라는 비판이었다. 이 작품과 가장 유사한 경험을 다루는 『엔리께의 여정 *Enrique's Journey*』은 미국 저널리스트인 소냐 나사리오의 동반 취재기이기에 현장의 생생한 증언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표현이 제한된 아동의 내면을 그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주 여정과 이후의 삶을 재현하는 데 있어 화자의 감정과 시각이 투영된 측면이 강했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나 홀로』는 작가 자신의 직접 체험이라는 점에서 이런 한계에서 벗어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모라의 작품은 논란의 여지 없이 증언 서사의 핵심 가치인 진정성과 대표성을 겸비했기에 “예술이자 하위 주체가 가진 기억의 전략”(베벌리 2013:184)이라는 평가에 부합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나 홀로』가 9세 아동의 일인칭 현재 시점으로 그려져 있다는 점에서 자전적 작품이긴 하지만 화자의 기억에 대해 일견 궁금증을 지닐 수 있다. 가령 성인이 된 사모라와 9세 아동 사모라가 지닌 시점의 차이를 증언자와 발화자의 그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사모라는 마치 이 여정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인 양 전달하면서 성인의 판단, 작가의 기법을 쉽사리 눈치 채지 못하도록 서사의 범위와 깊이를 적절히 조정한다.

물론 사건과 재현 사이의 시차로 인해 이 작품의 장르적 성격에 대해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즉, 이 글이 순수한 회고록인지, 아니면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작가의 상상력이 가미된 허구인지, 보다 근본적으로 이 작품이 증언 서사의 영역에 속하는지 등에 대해 반문해 볼 수도 있다. 어린이가 경험한 일을 이렇게 상세한 묘사와 세세한 정보를 담아 재현할 수 있는가, 어느 정도 왜곡과 과장, 편집자로서의 욕망이 개입했다고 하면 증언 서사의 순수성을 의심해 보아야 하지 않는가.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점에서 오히려 이 작품은 매우 독특하다. 유년기의 나 홀로 국경 넘기와 관련된 기억의 복원이 단순히 창작을 위한 장치라기보다는 신체적 통증 치료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작가가 당시 통과한 국경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고 할 만큼 기억을 보존하고 있을뿐더러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 감각적 기억의 복원과 재현에 몰두하였기에, 9세 사모라

의 경험과 인식이 기록의 일차적 목표가 된 것이다. 작가 자신의 절절한 고백에서 엿보이듯이 이런 세세한 기억을 두고 증언의 진정성에 비평적 의구심을 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나 홀로』가 증언 서사의 장르적 조건과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증언 서사로서의 의미와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트라우마의 치유라는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증언의 목적, 내용, 방식이라는 세 항목을 중심으로 이 작품이 기존 증언 서사를 어떻게 확장하고 있는지 논의할 것이다.

III. 증언 서사의 동기: 트라우마의 치유

앞서 언급했듯이 작가는 다양한 인터뷰에서 증언의 동기를 신체적 고통에서의 해방이었다고 토로한다. 작가 스스로 진단하듯 이주 과정을 통해 신체적 감각에 각인된 기억이 실제적 통증과 정신적 불안으로 이어졌다. 80~90년대 라티노 성장 문학에서 두드러진 창작 동기는 동화되지 못한 이민자, 혹은 소속되지 못한 타인으로서 느꼈던 수치감이었다. 사모라 역시 가족과 고국을 배신한 것 같은 죄책감, 차별과 상실의 대가로 얻게 된 미국에서의 반쪽짜리 삶으로 인해 성장기 내내 혼란과 분노에 휩싸였다고 고백한다(Pineda 2022). 아메리칸드림을 위해 두고 떠난 고국의 피붙이 가족, 온기와 기억이 새겨진 어린 시절의 집, 이와 대조되는 메마른 아파트와 미등록이민자라는 고립감은 그에게 온전한 가치를 지니지 못한 존재라는 수치감을 안겼다.

중미 출신 이주자들은 이주 과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폭력을 체험하거나 목격한다. “영웅적 여정”⁸⁾으로 회고되어야 하는 이주 경험이 그들의 기

8) 폭력적인 과거로부터 자신을 멀어지게 함으로써 중미 출신 미국인은 자신의 기원과 자신을 형성한 트라우마를 부정한다. 아르투로 아리아스(Arturo Arias)는 이러한 트라우마가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인 척하고 수치심의 근원으로 취급함으로써 중미 출신 미국인은 과거의 고통을 부정함으로써 이것을 극복하려고 한다고 말한다(Arias 2007:189). 엘살바도르 출신 저널리스트 오스카 마르티네스는 『라베스티아 *La Bestia*』에서 이민자들이 이주 여정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역 속에서 삭제되거나 제대로 발화되지 않는다(Martínez 2014:268). 이후 이후의 삶을 수치스럽게 여겨왔던 사모라는 이 아홉 살 소년의 생존력과 회복력이 없었다면 현재의 삶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죽음의 위기를 견디며 그 여정을 감당한 유년기의 자아를 통해 억압받고 부정당하는 중미 이주자의 인간적 면모와 타인을 위한 희생, 공동체적 연대와 사랑을 드러내길 희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이 작품의 창작 동기를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신체적,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한 진단 2) 글쓰기를 통한 자기 치유 확인 3) 감각적 기억의 복원을 통한 자아 발견. 이를 통해 그의 내면에 존재하고 발견되는 트라우마가 아동 사모라가 성인 작가로 거듭나는 데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사모라는 『몸은 기억한다: 트라우마가 남긴 흔적들』 책에 나오는 “우리의 몸은 기억을 담은 텍스트다. 그래서 기억하기야말로 재탄생이다”라는 문장으로 이 작품을 시작한다. 사모라가 자신의 트라우마를 진단하고 치유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은 마치 이 저서의 사례연구로 들릴 만큼 유효하다. 그는 대화와 기억, 재방문과 글쓰기라는 내러티브 치유 과정을 통해 트라우마의 장소인 국경지대에서 어린 자신과 대면함으로써 서서히 고통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하게 된다.

이 시는 그의 기억을 시화한 『보호자 없는 여정』에 포함된 치노(Chino)에 관한 것이다. “다리 무리에 맞서/ 형은 내게로 전력 질주했고/ 나는 형 어깨에 올라탔고/ 우리는 흰색 트럭과 총을 피해 도망쳤어”(Zamora 2017:9-12). 치노는 당시 20대 남성으로서 사모라에게 보호자 역할을 해준 엘살바도르 출신 이주자로서, 몸에 새겨진 문신으로 봤을 때 폭력조직에서 탈출한 것으로 보인다. 시에서 표현하듯이 치노는 미국경비대에 발각되자 사모라를 끌어당기며 도망을 쳤는데, 이때 그의 왼손을 끌어당겼기 때문에 사모라는 정신적 고통을 느낄 때마다 몸의 왼쪽에 통증을 느낀다.⁹⁾ 이렇듯 그가 겪은

이민자들이 이 과정을 영웅적 여정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트라우마나 폭력에 대해 침묵한다는 것이다.

9) <https://www.latimes.com/entertainment-arts/books/story/2022-09-15/javier-zamora-on-his-harrowing-journey-from-el-salvador-to-the-u-s-at-age>를 참조할 것.

트라우마는 매우 실제적이다. 사모라는 회고를 통해 원발 통증의 원인을 치노의 행동에서 발견한 것처럼 글쓰기 과정을 통해 증증의 안구 통증이나 편두통 또한 이주 경험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음을 깨닫는다.¹⁰⁾

첫 작품에서 화자는 개인적, 집단적, 상상적(투사적) 기억을 재구성한다. 캐시 카루스(Cathy Caruth)의 ‘반복적 보기’라는 개념을 적용해 보면 사모라의 기억하기 행위를 ‘시간적 순환성’이라는 용어로 정의할 수 있다. 시집에 재현된 시간적 순환성은 화자를 같은 공간으로 회귀하게 만들며 국경지대의 공간에서 계속 살아가는 듯한 느낌을 부여한다(Reimann 2018:16). 그런데 『나 홀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비선형적인 공간에 대한 기억과 거주가 작가에게 아픔과 경계뿐만 아니라 생존과 창작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각을 회상하는 것, 즉 신체적 반응과 기억의 섬세함을 감각적으로 담아내는 것이 그의 글쓰기의 가장 특징적인 기법이 된다. 카를라 비야센시오(Karla Villacencio)가 “잊을 수 없는 사람”처럼 글을 쓴다고 표현할 만큼¹¹⁾ 그의 묘사는 생생하고 반복적이며 감각적으로 다가온다.

『나 홀로』는 작장마다 구체적인 날짜에 발생한 일을 시간 흐름에 따라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테말라에서 배를 타고 멕시코 해변 도시에 도착 후 아카풀코로 가는 버스에 올라 이동하는 내용을 담은 장은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을 기술한 것이지만, 사모라 자신도 며칠이 흐른 것 같다고 끝을 맺을 정도로 많은 사건과 움직임을 세밀히 기록한다(2022a:133). “언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자기를 인식하려면 기억을 하나의 일관되고 완전한 형태로 체계화할 수 있어야 한다”(반 데어 콜크 2023:428)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 장의 세세한 재현과 감정 표현은 트라우마 치료에 대한 관찰기록이자 성과로도 읽힌다.¹²⁾ 『몸은 기억한

10) <https://www.goodtimes.sc/javier-zamoras-solito-is-an-unforgettable-and-timeless-memoir/>를 참조할 것.

11) <https://www.nytimes.com/2022/09/08/books/review/solito-javier-zamora.html>를 참조할 것.

12) 사모라는 시에서 고향의 풍경을 다시 기억하거나 재구성한다. “날짜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선형적 시간성을 거스르며 출발과 도착 사이의 시간에 정지된 정체성”(Reimann 2018:70)을 표현한다. 그러나 『나 홀로』에서는 도착과 도착 이후

다』의 「억눌린 기억의 과학적 특성」 장은 “이들의 기억은 계속해서 이미지와 신체 감각, 강렬한 감정으로 떠오른다”(반 데어 콜크 2023:340)라고 설명한다. 이를 마치 입증하듯이 사모라는 9살인 자신과 조우하기 위해 심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행동과 이미지, 정보, 이름 등이 떠오를 때마다 매번 기록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또한 소노라 사막을 재방문해 풍광과 상황을 재소환하는 고통을 감수한다(Zamora 2022b).

『나 홀로』는 육체적 통증으로 남아있는 트라우마와 미등록이민자라는 사회적 낙인에서 비롯된 수치감에 맞서고자 시작했지만, 기억의 틈새를 매우 거나 누군가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창작의 범주를 넘나들기도 한다. 아무리 뚜렷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과거의 복원에 경주했다고 해도 기억의 부정확함이 불가피하게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런 복원의 한계는 아동 화자의 언어를 빌린 말하기 방식과 비유를 통한 문학적 번역으로 인해 감지되기 어려워 만큼 가려진다. 그래서 감각적 재구성을 활용하여 어린 자아와 대면하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를 하나의 완결된 기억 내러티브로 엮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한층 더 근원적 욕구인 중앙아메리카 출신 이민자의 정체성을 탐구하며, 라티노 작가로서의 책무감과 열정을 발견하기도 한다. 궁극적으로는 자신, 가족, 공동체, 나아가 미국 사회와의 화해를 도모하고 있음을 다음 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증언 내러티브의 범주뿐만 아니라 증언 서사의 역할을 둘러싼 논의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IV. 증언 서사의 내용: ‘홀로 됨’의 의미

작가가 어린아이의 시점과 목소리로 이주 여정을 전달하는 데는 일종의 윤리적 목적이 숨어있다. 현재 국경지대에서 벌어지는 미성년 난민의 실태를 정치적 사안이 아닌 인권의 맥락에서 볼 수 있도록 실제 아동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독자들이 부모와 재회를 원하는 중미 아이의 회고를 국내 이민 문제가 아닌, 정서적 이해와 보편적 공감을 통해 수

의 삶까지 꺼안으려는 동기로 인해 구체적 낱짜를 통해서 선행적, 연대기적 시간관을 표출한다.

용할 수 있도록 체험담 형식의 이야기로 제시했다.

이 회고록이 증언 서사이자 문학 작품으로 읽히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근원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호자 없이(unaccompanied) 국경을 넘는 것과 홀로 외로이(solito)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¹³⁾ 『나 홀로』가 재현하려는 내용 중 하나는 바로 이 둘의 의미 차이와 관계가 있다. 작가 스스로 작품 말미에 독자들이 그 홀로 됨의 함축적 의미를 발견하길 원한다는 희망을 표명한다. 낯선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혼자’라는 감정은 여러 층위에서 재현된다. 사모라가 느낀 홀로 됨의 감정은 재결합한 부모와 오히려 진정한 소통없이 살아간다는 자각에서 크게 불거지기 시작한다. 사모라처럼 유년기에 성인 보호자 없이 이주했던 이민자들은 경험을 나눌 공유 장소가 없기에 자신의 경우가 드물다고 간주하는데, 실제와 다르다는 점에서 ‘홀로’라는 표현은 반어적인 의미를 함축한다.¹⁴⁾ 또한 홀로 됨은 성장 과정에서 호되게 겪었던 정체성의 혼란, 즉 미국 사회에서 소외되었다는 인식과 관련되기 때문에 ‘예외’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가장 잘 알려진 일반적 의미는 그가 경험한 이주의 형태로서, 성인 보호자 없이 혼자 움직이는 여정을 일컫는다. 그렇기에 이런 미성년자들이 관통해야 하는 위험과 고통도 내포하고 있다.

사모라가 이 감정에 휩싸이게 된 첫 순간은 과테말라와 멕시코 사이 국경에서 할아버지와 헤어진 직후 다른 일행들 속에 홀로 남겨진 때이다. 할아버지는 엘살바도르를 출발해 과테말라를 거쳐 멕시코 국경과 맞닿은 곳까지 손자를 배운 후 십여 명의 이주민들을 안내하는 코요테에게 사모라

13) “오딧세이(The Odyssey)” 기사의 저자 헤수스 로드리게스(Jesús A. Rodríguez)는 이 두 단어를 영어와 스페인어라는 언어 차원에서 독자에게 미치는 호소력 차이로 지적한다. <https://www.thenation.com/article/culture/javier-zamora-solito/>

14) 사모라가 여정을 떠난 지 22년이 지났지만, 어린이들의 이주는 여전히 가혹한 현실로 이어진다. 2022 회계연도에만 미국 남서부 국경에서 성인 미동반 미성년자의 체포가 152,057건 발생했으며, 이는 146,925건이었던 2021년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사모라는 “이 책은 홀로라고 불리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우 아이러니합니다(It’s very ironic, because the book is called alone, but we are not alone)”라고 말한다.

<https://www.nbcnews.com/news/latino/migrant-children-survive-horror-javier-zamora-details-3000-mile-journe-rcna72084>

의 신변을 부탁하고 집으로 돌아간다.

아래 인용은 과테말라와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할아버지와 헤어지는 모습으로 감각적 이미지가 생생하게 부각된다. 어린 손자를 홀로 보내는 할아버지의 슬픔과 불안이 깃든 모습을 사모라는 이렇게 그리고 있다.

길 양쪽의 녹색이 할아버지 하얀 폴로셔츠를 더 희게 만들었어요. 빗방울 없는 밝은 구름. 구슬 같은 할아버지의 불룩하고 아주 둥근 배. 흔들리는 손. 나는 버스 뒤 창문에 얼굴을 뒀어요. 할아버지의 열은 갈색 손이 흔들리는 걸 뚫어지게 봤어요. 버스가 흔들리면서 나아가자 할아버지는 점점 작아졌어요. 구름이 되고, 구슬이 되고, 손, 손톱, 하얀 점(2022a:73).

어린 사모라는 “난 혼자라고 느껴요. 외롭고, 혼자, 혼자요, 진짜 나 외톨이에요(I feel alone, lonely, solo, solito, solito de verdad)”(2022a:74)라는 말로 절망을 표현한다. ‘나 홀로’는 가족이 부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운 반응이자 곧이어 가이드의 배신으로 인해 의지할 곳이 없어진 상황에 대한 냉혹한 인식이다.

처음 가이드를 맡은 돈 다고(Don Dago)라는 코요테가 중간에 사라지면서 이주민들은 티후아나 근방이 아닌 애리조나 사막을 가로지르는 루트로 월경을 시도하게 된다.¹⁵⁾ 돈 다고는 사모라 가족의 바람과는 달리 비정하고 파렴치한 이민 브로커로, 일행에게 거짓 약속을 한 후 얼마 뒤 종적을 감춰 버린다. 이후 사모라가 만난 다른 코요테들 역시 신뢰할 만한 성인 조력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일자리 수요에 따라 움직이는 무능력하거나 미숙하

15) 2000년대 이르러 멕시코를 가로지르는 중미 출신 이주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착취하는 지하 경제가 발달하면서 코요테로 불리는 이주 브로커가 납치나 살인 등의 범죄 행위에 가담하는 비율이 상승했다. 『나홀로』에 등장하는 코요테들은 이런 범죄에 연루한 경우보다는 수익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주자들의 취약함을 활용하면서 사막을 건너는 동안 위기에 처하면 그들이 약속한 바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고의적 유기라기보다는 엄혹한 자연환경이나 국경경비대 때문에 피치 못하게 도망치거나 체포된 경우이다. 가족들은 사모라가 기억하길 원했기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루트를 암기하도록 했다. “할아버지랑 연습한 걸 반복해요: 치아파스, 테페, 로스 모치스, 에르모시오, 티후아나. 계속가면 칼리포르니아의 산라파엘(I repeat what I practiced with Grandpa: Chiapas, DF. Los Mochis, Hermosillo, Tijuana, All the way to San Rafael, California)”(2022a:93).

고, 비인간적이며 냉정한 가이드의 역할 그 이상을 보여주지 못한다.

사모라는 전 여정에 걸쳐 홀로 됨의 의미를 둘러싸고 점차 변화하는 감정과 시각을 드러낸다. 처음 여정을 시작할 무렵 이주자 그룹에 합류하면서 정감과 신뢰어린 단어를 사용한다.

우리는 도시, 마을, 해변 근처, 화산 근처에 집을 두고 떠났어요. 혼자 떠났다가 코요테를 발견했고, 그 다음에는 무리를 이루었고, 지금은 더 큰 무리가 되었습니다. 동지가 되고 콜로니가 되었어요(2022a:89).

돈 다고가 사라진 이후 사모라는 고국 출신 동행인 세 명과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20대 중반의 남성 치노는 보호자처럼 그의 안전을 지켜주면서 일종의 형제애를 느끼게 만든다. 한편, 모녀 사이인 짚은 파트리시아와 십대인 카를라는 사모라를 가족의 일부처럼 가깝게 돌보며 함께 이동한다. 이 네 명은 이주 과정에서 기습 수색과 검거, 사법적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코요테가 만들어 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가족인 것처럼 행동한다. 이런 연극적 상황과 별개로 치노와 파트리시아는 어린 사모라를 실제 동생, 혹은 아들과 같이 대하며 친족 같은 인간적 유대를 맺는다. 그들의 도움에 부채감을 표현하는 사모라는 이 회고록의 후기에 이 글이 그들에게 바치는 감사의 표현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사모라는 이주 경로를 따라 움직이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거나 낯선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마치 즉각적으로 기억의 회로를 켜는 것처럼 연상을 일으키는 고리를 따라 가족으로 돌아간다. 이동에 따라 시공간이 바뀌는 과정에서 엘살바도르의 집과 학교, 가족과의 일화와 추억, 그들의 일상과 어투, 외모에 이르기까지 작은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삽입된다. 북을 향한 이주 내러티브가 계속 남쪽 가족으로 회귀하게 되는 격이다. 즉, 불법 월경을 시도하며 만드는 새로운 일화와 남겨진 가족에 대한 연상과 추억은 이주가 진행되는 동안 끊임없이 격자로 짜인다. 시집에서 개인적 기억, 가족적 기억, 상상적 기억이 어우러지면서 중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듯이, 『나 홀로』는 이주 기억의 중심에 가족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결국 이 글은 가족의 이별과 탄생에 관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코요테와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은 중간 기착지에서 다음 장소

를 향해 머무는데, 사모라는 파트리시아가 확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곧바로 집에 있는 말리 이모를 떠올린다. 파트리시아의 행동, 냄새, 자신을 보살피는 몸짓은 엄마와 이모, 할머니와의 일화로 연결된다. 이렇게 할머니의 음식, 할아버지의 꾸짖음과 청소, 이모가 좋아하는 음악, 엄마의 외모 등등 다양한 일화들이 소개된다. 사모라는 그들을 관찰하면서 부모와 신체적·정서적 접촉을 원하는 아이의 간절함을 자연스럽게 드러낸다.

파트리시아와 카를라는 잠자리에서 서로 보살피 줘요. 파트리시아가 카를라의 머리를 땀과 풀고 풀고 하는데, 나도 엄마랑, 이모랑,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냥 나를 안아줬으면 좋겠어요(2022a:183).

9세 사모라에게 진짜 일어났던 연상이든 아니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기억이 실제로 그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감소시켰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물리적 공간의 이동과 가족이라는 정서적 근원을 향한 반복적 회귀가 회고록을 이끌어 가는 서술적 동력임에는 분명하다.

이들과 함께 이주하며 사모라가 회고록에 담은 내용-절망 가운데 느끼는 기대, 집과 가족에 대한 갈망, 위험과 배고픔, 갈증을 느끼며 겪는 고통, 군인과 법 집행 기관 앞에서 느끼는 공포심, 은신처와 감옥, 개와 총, 헬리콥터에 대한 두려움, 그들을 노리는 부패와 속임수, 죽음에 대한 상상¹⁶⁾-은 모두 공통된 경험이다. 이 중에서도 작가는 월경 이후 사막을 건너는 장면을 매우 자세히 담고 있다. 이 모든 일정을 통과하면서 신발 끈조차 제대로 묶지 못하는 아홉 살의 사모라는 ‘대체 가족’의 도움과 희생 없이는 자신의 생존이 불가능함을 본능적으로 체감한다.

작품 속에 반복되는 가족이라는 단어는 홀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점점 두터운 의미망을 형성한다. 국경을 넘은 후 소노라 사막을 걸어가는 모습을 담은 아래의 인용도 예외가 아니다.

16) 기사의 저자는 이 내용이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강조한다.

<https://angelusnews.com/arts-culture/solito-book-immigration/>

오래된 신문지처럼 사르륵, 부스럭, 계란 위를 걷는 것처럼 우드득, 사람들 손의 물통에서 철렁, 우리는 다시 걸어요. 우리 길 앞으로 쥐나 토끼가 지나가요. 머리 위로는 박쥐가 날고요. 이것들을 눈으로 본다면 난 내 애완동물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지금 낯선 사람들하고도 그렇게 가까워요. 우리 모두 가족이에요. 내 앞에 아빠, 그 앞에 엄마와 누나, 이 여섯 명이 지금 바로 내 가족(2022a:220).

어린 사모라는 동행하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간주하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이주를 감행하는 것이다. 저자가 여러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치노가 생면 부지의 아이를 업고 사막을 걷는다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치노는 사막을 건너면서 극심한 추위와 더위, 갈증과 피로로 인해 점점 걷기 어려워진 사모라와 파트리시아, 카를라를 번갈아 등에 업고 걷게 된다. 치노에게 업힌 사모라는 그의 등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난 후, 다시 업힐 차례가 올 때까지 희미한 의식을 지니고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발걸음을 내딛는다. 그들은 사막에서 극한 상황을 견디며 이동하다가 코요테와 떨어지고 결국은 국경경비대에 의해 체포되고 구금된다. 사모라는 새로운 가족에게 다칠 일 에 대해 극도로 불안해하며 가족이라는 끈을 더욱 강하게 움켜쥐는다.

질은 금발이 영어로 무언가를 속삭이며 카를라의 팔을 잡아당겨요. 누나는 치노의 팔을 놓지 않아요. 난 이들이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내 가족이죠. 다른 제복이 달려와 누나를 바닥에서 들어 올립니다. “안 돼!” 비명이 나와요. 나는 소리 지를 거예요!(2022a:252)

이들이 국경지대 구금소에서 일정 기간 분리되어 조사를 받은 후 송환되는 과정에서 사모라는 치노와 잠시 헤어지는데,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 마치 낯선 곳에서 부모와 분리된 아이처럼 중얼거린다.

오늘 우린 원래 넷인데, 이제 셋이 됐어요. 난 나 혼자가 될까 봐서 무서워요. 파트리시아와 카를라가 떠날까 봐. 혼자가 되기 싫다고요(2022a:256); 우리는 넷이에요(2022a:265); 난 진짜 우리 엄마 아빠가 치노, 파트리시아, 카를라를 만났으면 좋겠어요(2022a:267).

사모라와 일행은 앞선 두 차례의 실패 이후 세 번째 시도 끝에 애리조나의 한 숙소에 도착하는 데 성공하고, 코요테의 연락을 받은 그의 부모는 캘리포니아로부터 그곳을 향해 온다. 그 사이 사모라는 그의 대안 가족과 작별을 하게 된다. 버지니아로 향하는 그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난 두 번째 내 가족과 헤어지기 싫어요”(2022a:370)라는 말로 그들에 대한 강한 애착을 드러내며 분리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한다.

고국의 가족과 떨어져 부모와 재회하기 전 경험한 단절이 트라우마의 원형을 제공했음에도 사모라는 아동 난민을 다룬 작품에서 흔히 재현되는 고통과는 다른 인간적 드라마를 그려낸다. 그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느끼는 순간이 바로 수치감이 아닌 존엄의 근거로 바뀐 것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대체 가족으로 유대를 맺는 경험이야말로 홀로 됨과 인간성 상실에 대한 대안이자 항체가 될 수 있다.

“내 새로운 가족이 캘리포니아에 같이 가길 원해요. 신발 끈 묶는 걸 배워서 치노 형에게 잘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¹⁷⁾ 치노 형, 내겐 없는 우리 형”(2022a:372)처럼 ‘혼자서’ 떠난 고행이 역설적으로 ‘함께’ 하는 여정이 되었고, 이것은 그에게 생존과 희망을 허락함으로써 아메리칸드림을 추구할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작가 사모라는 폭력과 육체적 고통, 공포와 폭력이 부끄러움이 아닌 새로운 삶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을 스스로에게 확인시킨다. 존재에 대한 수치감을 안겨준 여정이었지만 그것이 없었다면 이민 청년이자 라티노 작가로서 살아갈 수 없을 터였기 때문이다. 사모라는 홀로 됨과 가족의 존재를 병치함으로써 ‘떠남과 도착 사이에 정체된 정체성’, ‘틈새에서 살아가는 정체성’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현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자기 위로와 격려를 발견하고, 비록 길에서 급조된 가족이었지만 그들에게 생존을 빚지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한다.

사모라는 이주가 2009년이 아닌 2019년이었다면 자신이 가족과의 재회에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을 덧붙인다. 현재의 국경 경비가 삼엄해지고 폭력적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그가 감사를 덧붙이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

17) “내가 모르는 한가지 일은 신발 끈을 묶는 거예요”(2022a:167).

V. 증언 서사 방식: 감각적 기억의 복원과 의미

이 회고록을 어른 사모라와 아이 사모라 간의 협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모라는 육체적·정신적 통증을 치료하고 당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심리치료사의 도움에 의지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을 얼마나 반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즉, 시간의 경과에 의한 변조된 기억이든 이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창작적 개입이든 구별하는 일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9세의 경험을 어떻게 복원했느냐 하는 정확성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의 언어를 통해서 전달하려는 서술방식 자체가 이 증언 서사의 의미를 확장한다고 할 수 있다.

발레리아 루이셀리(Valeria Luiselli)는 소설 속 액자 소설에서 기차를 타고 국경지대를 넘어 사막을 건너는 아이들을 그리고 있다. 아이들의 목소리를 재현하기 위해 사실적 묘사보다는 환상 기법을 차용하여 시공간의 구체성을 모호하게 만들거나 신화적 모티브를 사용해 사건의 맥락을 초월적으로 만든다. 그럼에도 루이셀리는 비현실적 세계를 창조함으로써 재현의 꺾진성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들의 목소리를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을 입증한다.

이 회고록은 이런 측면에서 루이셀리의 전략과는 다르다. 작가는 주로 감각적 기억을 복원함으로써 화자의 언어를 빌어 어린이의 이해 방식이나 인식 수준에 부합하는 현실 해석을 보여준다. 모든 경험을 극히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한편, 새로 접하는 사물이나 자연을 창의적으로 규정하고 명명함으로써 육체적 고통을 허구적 이야기 속에 삽입해 제시한다. 즉, 증언 서사의 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아이의 실제 생각을 그리다 보면 동화적 혹은 상상의 세계를 재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모라가 보여주는 사실적이면서 상상적인 이미지는 그동안 중미 이주자들의 여정을 지리적 특징과 연계해 다루는 서사에 흔히 등장하지 않던 표식으로, 국경의 위기를 개인적·집단적 차원에서 주체적으로 그려내는 카운터매핑(counter-mapping), 즉 대항지도 그리기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 아동 사모라의 현실 해석과 감각적 재현

작가는 어린 사모라가 이해했던 수준으로 당시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제한된 정보와 순진한 목소리, 감각적 표현을 이용한다. 아이가 습득할 만한 자연 지식을 반영해 눈앞에 벌어지는 광경을 해석하면서, 고통의 순간을 순수한 감성과 동화적 아름다움이 혼재된 생생한 이미지로 제시한다.

이 작품에서 감각적 묘사가 가장 잘 이뤄진 일화는 배를 타고 과테말라 오코스에서 멕시코로 넘어가는 장면과 국경지대 사막을 걷는 장면이다. 오코스에서 탄 배에서 나는 휘발유 냄새와 르르르(Rrrrrrrr) 소리, 그들이 느낀 어지러움과 구토, 추위와 더위, 땀과 바닷물은 마치 실제 광경을 목격하는 듯한 착각을 줄 만큼 생생히 묘사되어 있다. “휘발유 냄새는 목구멍에 손가락을 넣는 느낌이에요(Gasoline feels like a finger in the throat)”(2022a:87)라고 어린 사모라는 배에 탄 사람들이 구토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한편, 파도가 술렁거리는 거친 바다 가운데서 고래를 만나는 희망을 이야기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것은 곧 말리 이모와의 추억으로 겹쳐진다. 해변에서 익사할 뻔했던 순간과 말리가 느꼈던 공포감으로 이어진다. 곧이어 화자는 승선의 어려움을 묘사하는 가운데 날치(Flying fish)를 보면서 신기함과 호기심을 표현하고, 눈에 들어오는 별과 달의 아름다움을 스치듯이 언급한다.

사모라는 어린이의 상상력으로 변형된 현실이 당시의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해주었다고 밝힌다. 그래서 이것은 문학적 표현이라기보다는 당시의 기억을 재현한 노력의 산물에 가깝다. 중미 이주 서사를 다루는 글에서는 특정 경험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전달하는 동시에 그것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역사적 메커니즘을 흔히 강조하는데, 이 작품에서는 매우 제한된 방식으로만 전달한다. 그래서 비야센시오는 아이의 시선으로 본 이 끔찍한 여정에 대해 “자신의 생존을 허세 없이 표현함으로써 이민의 참된 공포를 드러낸다”라고 평가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이민자를 무자비하게 다룬다는 코요테의 경고 속에서 ‘죽인다’라는 동사가 귀에 들리자 사모라는 그 공포를 본능적으로 회피하고자 발음이 유사한 나무라는 단어를 읊조린다.

그는 큰 소리칠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들렸어요. “죽인 다”라는 말, 마타르(matar). 그건 단어예요. 나무 같은. 아보카도 나무(마타). 레몬 나무(마타). 유리 나무(마타). 카데호¹⁸⁾, 카데히토, 전 죽기 싫어요(2022a:110).

이주자들이 멕시코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검문을 당하는 경험은 사모라가 극도의 공포를 느낀 순간이다. 부패한 경찰에 의해 돈을 갈취당하는 현장 앞에서 할 말을 잃은 사모라는 이 장소에서 멀어지는 상상을 한다.

구름 위로 산 위로 나는 날고 있다. 호수와 도시와 골든 게이트로 가는 길, 나는 다른 건 들을 수 없어.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어. 자그마한 흙빛의 도마뱀이 내 얼굴 가까이 있어. 나처럼 까만데, 땅바닥이랑 분간이 안돼(2022a:126).

도마뱀에 집중하면서 폭력적 상황으로부터 시신을 분리하는 경험을 서술한 것이다. 실제로 사모라는 이런 상황이 오면 특정 물체나 특정 감각에 의지적으로 집중하면서 그 공포를 견뎌냈다고 회고한다. 그는 “별, 선인장, 그것이 얼마나 이상하게 보이는지, 혹은 앞에 있는 사람의 신발에 집중한다. 모든 것에 집중하면 압도당하기 때문이다”(Pineda 2022)라고 설명한다.

중미 출신 이주자에게 멕시코 내의 폭력과 공포 외에 또 다른 역경이라면 국경을 넘어 사막을 가로지르는 시간일 것이다. 사모라는 이것을 재현하기 위해 내면에 잠재된 감각적 기억(sensory memory)을 복원하고 묘사함으로써 “자신의 몸, ‘자기 자신’과 다시 접촉”(반 데어 콜크 2023:428) 할 수

18) 카데호(Cadejo)는 엘살바도르의 수호신으로서 사모라는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신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한다. 본고에서는 다루지 못한 주제로 유머와 언어 전환을 통한 서사 기법을 들 수 있다. 영어로 작성된 회고록이지만 고국, 고향, 추억 등과 연관된 표현, 감정과 애착 등을 느끼는 단어, 번역을 통해 고유의 느낌을 살릴 수 없는 일상어, 비속어, 감탄어 등은 스페인어로 표기한다. 이런 언어 사용으로 인해 독자가 현재 대화가 스페인어로 이뤄지고 있음을 인지하게 만든다. 또한 코요테가 이주자들에게 언어 사용에 대해 경고하며 몇몇 용어를 가르치는 장면이 등장한다. 개별 국가에 따라 사용되는 단어가 다르기 때문이다. 불법적 신분이 발각될 위험을 피하고자 해당 용어를 암기하는 모습 또한 스페인어 화자임을 환기하는 내용이다.

있는 시간을 충실히 갖게 된다.¹⁹⁾ 그래서 사막을 걸으면서 느끼는 갈증, 한 모금의 물, 가쁜 숨, 추위를 어린이의 느낌으로 재현한다.

치노의 물병을 내 입술에 대자 심장이 뛰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계속 걷는 것처럼 별이 움직입니다. 다리가 얼얼해요. 우리는 빨리 걸어왔나 봐요. 난 숨을 참아요. 바람이 없는데, 피부가 차가운 물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추워요(2022a:219).

이렇듯 사막에서의 고통을 묘사하기 위해 모든 시공간적 환경을 환기하여 “이미지, 소리, 감각”이 통합된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구성하게 된다.²⁰⁾ 그의 일행이 코요테에게서 멀어져 방향을 잃고 갈증으로 탈진 상태에 가까이 왔을 때, 사모라는 공기를 먹는 상상을 펼친다.

파트리시아는 술취한 것처럼 옆길로 걸어요. 왜 구름이 없지? 내 배는 누가 찌르는 것처럼 아파요. 나는 발을 질질 끌어요. 공기를 구름이나 안개라고 생각하고 먹어요. 내가 물고기 입을 가진 것처럼 걸으면서 한 입 베어 물어요(2022a:326).

실제 어린 사모라는 이렇게 갈증과 탈진을 상상력으로 견딘 것이다. 매우 사실적 상황이지만 동화 속 이야기 같은 재현 방식을 취하고 있다. 루이셀리의 환상적 장면이 현실의 고통을 한층 생생히 전달하는 것처럼 어린이 사모라의 상상력이 진술 불가능한 고통의 극심함을 보다 효과적으로 재현한다. 『보호자 없는 여정』에서 사모라는 갈증이 몸속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으로 그림으로써 트라우마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인상을 강렬히 남긴다. 반면

19) 사모라는 사막을 걸으며 경험한 일들이 낱새로 쌓여 바뀌는 것처럼 표현한다. “사막은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흙먼지, 선인장, 땀, 술, 바위, 피, 흘린 참치캔 국물, 오줌... 이 모든 것이 우리 피부에 붙어있어요”(2022a:248). 또한 오래 걸은 뒤 피로와 갈증으로 멍해진 상태를 마치 해저를 걷는 듯 표현한다. “이 바람과 이 조명(파란색, 회색)때문에 바다 밑바닥처럼 느껴져요”(2022a:297). 이렇듯 감각적 기억의 복원을 통해 당시의 고통을 표현한다.

20) 베셀 반 데어 콜크는 『몸은 기억한다』에서 트라우마 기억이 분산되지 않은 통합되고 일관된 이야기 형태로 되살리게 되는 과정이 치유의 길이라고 설명한다. 기억에는 시공간적 통찰력, 신체적 감각이 포함된다.

『나 홀로』에서는 처음 보는 사물과 자연에 이름을 붙이고 친밀한 이야기를 꾸며내는 아이 사모라의 재능, 즉 생존자이자 창작자로서 능력을 강조함으로써 삶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성인 사모라의 모습을 엿보이게 만들고 있다.

새로운 가족을 발견하는 화자 사모라의 이야기꾼으로서의 재능은 두려운 환경을 이해 가능한 자연의 세계로 만드는 창조적 이름짓기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바다, 사막, 하늘, 신화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고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다. “누구든지 극도의 위협을 받으면 습득할 수 있는 대처 매커니즘은 예술적 뿌리가”(Villacencio) 되듯이, 사막에서 치노가 사모라를 업고 걸을 때, “나는 사막에 알라딘, 치노는 내 카펫이에요”(2022a:319)라고 비유적 번역을 활용한다. 국경지대를 가로지르는 이주자에게 소노라 사막은 생명 상실과 유지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공간이다. 사막이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 창작의 소재를 포착함으로써 공포를 일으키는 상황을 의지적으로 외면하는 것은 아이였기에 가능한 생존전략이었을 것이다.

아이는 자기 스스로를 ‘탐험가’(2022a:308)라고 부르며, 사막에서 발견하는 각종 선인장에 시선을 집중하며 그 생김새를 따서 외로움이나 뾰족이, 솜털 등의 이름을 붙인다. 이런 명명 행위는 추위와 더위, 피로와 갈증의 긴 여정을 망각하고자 한 노력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선인장은 어둠 속에서 사라졌지만 그게 거기 있다는 건 알아요. 이제 뭘 찾아야 할지 알겠어요. 윤곽선, 그 애들 그림자, 가시 촉수, 외로운 선인장, 퍼지 선인장, 때때로 복서처럼 한쪽 팔 또는 양쪽 팔이 위를 향하고 있는 피플 선인장. 어떤 선인장은 팔이 너무 많아 도시의 스카이라인처럼 보이기도 했어요(2022a:315).

이렇듯 작가는 어린이의 순진하고 호기심이 많은 시선을 통해 생명이 위협받는 사건을 재현해 내면서도, 화자의 역할을 어린 사모라에게 오롯이 맡김으로써 거리두기와 망각하기, 집중하기 방식의 내적 스토리텔링이 당시 생존전략이었다는 점을 증명한다. 아울러 성인이 된 사모라는 트라우마적 상황을 견뎌내기 위해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을 터득했던 어린 사모라와 재회함으로써 회복 탄력성을 발견한다. 감각적 기억의 재현은 연상 언어, 은

유와 상징으로 이어지며, 짧은 대사로 긴박감과 긴장감을 전달하는 서술 방식을 풍부하게 만든다. 결국 이 회고록은 인간적 드라마를 생생하게 구현하는 문학적 완성도와 전달력에 힘입어 ‘증언’ 문학에서 증언 ‘문학’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2. 국경 위기의 증언과 카운터매핑(counter-mapping)

사막은 강, 장벽과 함께 미국의 국경지대를 얘기하는 세 가지 키워드가 된다. 국경의 군사화로 인해 소노라 사막을 건너는 사람들이 치르는 희생이 미디어를 통해 자주 보고된다. 이민자와 사막의 관계를 가장 잘 형상화한 문학 작품으로 『선은 장벽이 되고 *The lines becomes the river*』를 들 수 있는데, 사막을 걷는 사람들의 고통이 외부적 시선이 아닌 주체의 시각, 내면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멕시코계 미국인 작가인 프란시스코 칸투(Francisco Cantú)의 자전적 경험을 허구화시킨 작품으로 사막에서 벌어지는 폭력적 상황과 지리적 환경의 엄혹함이 잘 표현되어 있다. 국경경비대원으로서 체포와 감금, 송환 등 법을 집행하면서 느끼는 모순적 갈등과 점점 희미해지는 윤리적 잣대, 무감각해져 가는 도덕성 등이 잘 그려져 있다. 법과 무법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과 이민자를 인간이 아닌 짐승처럼 바라보는 잔인함, 업무 과중으로 인해 마비되는 판단력 등은 『나 홀로』에서 어린 사모라가 제한적으로 혹은 인상적으로 전달하는 국경지대의 실제 모습을 보완해 줄 수 있다. 칸투는 밀입국자들의 죽음을 지난 십여 년간 어떤 은유로 표현했는지 요약해서 보여준다. 죽음은 황무지를 통과하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이자 성난 황무지가 초래한 분노의 심판, 국경 전쟁의 결과인 ‘폭력’으로 묘사된다. 또한 밀수업자, 경찰, 민병대에 의해 도살되는 ‘짐승’이자, ‘나라를 위협하는 위험한 물’로 묘사된다(2019:143-44).

『나 홀로』에서 사막은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 특별한 의미와 역할을 지닌다. 작가는 사막 건너기가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예상치 못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기회 또한 지니게 되었다고 설명한다.²¹⁾ 사모

21) <https://www.nytimes.com/2022/09/05/books/javier-zamora-solito-migration.html>를 참조.

라는 외부자의 시선에 쉽게 포착되지 않는 섬세한 자연을 보여줌으로써 현장성과 급박함의 균형된 리듬을 표출해 낸다. 즉, 심장의 박동과 느린 걸음, 정지된 자연, 긴박한 소리와 움직임이 화자의 목소리에 그대로 반영되기에 일종의 서사적 리듬이 만들어진다. 이주자들은 국경지대 근처에서 코요테의 가이드를 따라 움직이고 멈추는 행동을 반복한다. 경비대의 차량 소리에 숨을 멈추고 숨어있다가 빠른 걸음으로 길을 건너 사막지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사모라는 이런 두려운 순간을 바닷가의 소리와 파도의 움직임으로 바꾼다.

크레용 덤불에서 치어리더 덤불로 우리는 몸을 웅크려 기어갑니다. 숨 털과 외로움을 지나서요. 파도가 생겨나고, 가까워지고,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멈춥니다. 그리고 그건 쉬익하고 사라집니다. 난 그게 정말 좋아요. 여긴 바로 바다예요. 아스팔트 도로는 바닷물이고 자동차는 파도고요(2022a:305).

사모라는 사막에서 발견한 시체의 냄새, 선인장 열매의 맛, 헬리콥터 소리, 별빛, 모래와 돌의 촉감을 얘기하며 이주의 고통을 전달하지만, 일출과 별떼를 묘사하며 국경지대를 처음 만나는 외부인의 낯선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한다. 반면 칸투가 꿈을 통해 묘사하는 사막은 어떠한가.

하지만 나는 여전히 악몽을 꾸다. 내가 예전에 가본 적이 있는 마을, 미초아칸에서 온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황무지를 헤쳐 나간다. 그들은 물도 음식도 없이 방향하다가 곧 방향을 잃어버리고, 길과 마을을 찾아 헤매다가 서서히 죽어간다. 마침내 나는 황무지 땅바닥에 엎어져 있는 그들의 사체를 발견한다. 악취가 피어오른다. 광활한 분노의 대지 위에 그들의 주검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다(칸투 2019:169).

칸투의 고뇌가 보여주는 사막의 실태와는 달리 사모라의 회고록은 자신만의 목소리를 통해 생존의 지도를 새롭게 보여주는 시도로 읽힌다. 마치 루이셀리가 시각적, 청각적, 문학적 증거를 축적하며 자신의 소설을 이주 아카이브이자 새로운 대항 지도로 남긴 것처럼, 사모라 또한 소노라 사막의 여정을 이주민의 동선이 아닌 인간과 자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감을 통

해 만든 지도상의 새로운 표식으로 변화시킨다.

우리는 흙길을 건넜는데 도로 같기도 하고요, 잔디는 없었고 바위가 많이 튀어나왔어요. 달빛이 비치면 바위들이 두꺼비처럼 보였어요. 가끔은 길 위를 잠시 걷기도 하고 건너기도 했어요. 차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발밑의 흙은 이제 회색도 푸르스름한 흰색도 아니에요. 붉은 색, 진한 노란색으로 깨어나고 있어요. 산도 그렇고요. 빛이 비치는 사막은 완전히 다른 곳 같아요. 주변에 있는 흙과 나무, 그리고 덤불, 선인장, 나무로 가득한 지평선까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왼쪽 앞에 산맥이 있어요. 산맥은 작고 끝이 어둡고 아래쪽은 짙은 갈색이에요. “저 산! 저거예요” 치노 형이 한 봉우리를 가리켰어요. “저거요?” “그런 것 같아요” 코벨소 같지는 않아요! 코가 둥글고 얼굴이 긴 사람이 누워 있는 것 같은데요(2022a:301-302).

국경지대의 위기를 재현하기 위해 지리적 위치에 따른 시청각적 자료를 담은 루이셀리의 소설이나 제이슨 데 레온(Jason De León)의 ‘미등록이민 프로젝트(Undocumented Migration Project)’는 일종의 카운터매핑에 해당한다. 사망한 이주자의 신체 상태에 대한 설명, 자연의 음향과 동물의 소리 녹음, 사막의 풍경 사진, 이주자들의 동선과 남긴 물건 등의 종류를 보여주는 지도는 일반적으로 사망, 체포, 송환 등의 데이터, 혹은 국경 통제나 감시 자료가 표기된 패권적 지도에 대항하는 방식으로 기능한다.²²⁾『나 홀로』 역시 이런 공권력이 지배하는 관행적 지도 작성에 도전하고 있다. 물론 이 회고록은 아동의 경험을 증언한다는 한계로 인해 지도 그리기는 주로 감각적 기억의 재구성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이 글의 국경지대가 멕시코의 노갈레스를 통과해 애리조나로 향하는 경로의 일부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카운터매핑의 본격적 시도라고 해석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세 번의 국경 넘기와 사막 통과하기는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외면했던 경험이었지만, 자아 수용을 통해 복원된 기억 속에서 아픔과 생명을 동시에 주는 사건이 되었다. 사모라의 상세하고 생생한 묘사는 굴복과 침묵의

22) “Sight and Sound: Counter-mapping the U.S.-Mexico Borer Crisis”(2022) by Lacey Schauwecker 참조할 것.

서사에 반기를 드는 방식이자 시공간을 기억하고 기록함으로써 이주 아가 이브에 새로운 자료를 축적하는 일이기도 하다. 범죄자나 불법적 통행자, 혹은 피해자나 희생자의 시각이 아닌, 한 소외된 목소리가 그 땅을 밟으면서 이주자들이 경험히 서린 지도를 그려내는 것이다. 그래서 어린 사모라의 감각으로 새롭게 파악되는 사막의 지형은 대항 지도로서 의미를 충분히 지녔다고 할 수 있다.

VI. 결론

『나 홀로』가 지니는 증언 서사로서 의미와 역할을 다루기 위해 증언의 목적, 내용, 서사 방식을 살펴보았다. 재현에 대한 갈망을 해소하고 트라우마로 인한 신체적 상흔과 정면으로 대면하기 위해 작가는 과거 속으로 들어가 여로를 다시 밟았을 뿐만 아니라 어린 자아에게 화자의 역할을 부여하면서 현 위기의 증언자가 되도록 만들었다. 작가 사모라는 어린 사모라가 감당해야 했던 ‘홀로 됨’ 혹은 ‘외톨이’ 상태에 대한 의미를 스토리텔링 방식 자체를 통해 드러냄으로써 이주를 둘러싼 사회적·역사적 현실과 정서적·심리적 세계를 동시에 그려내고 있다.

그동안 이주의 집단적 비극을 둘러싸고 ‘증언, 트라우마, 서사’라는 주제로 다양한 작품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작품은 한 개인의 트라우마를 조명하거나 아메리칸드림을 위해 견뎌 낸 고통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민으로 인한 이별과 세대 간의 갈등, 공동체의 붕괴가 아이의 성장 과정에 미친 영향을 세밀히 파악하고, 근원적 고독과 외로움에 맞설 가족의 의미에 대한 탐구로 나아간다. 나아가 자신과의 화해를 타인의 존엄함과 인간애를 통해 시도하고,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애와 형제애를 보여준 동행인들의 모습에서 이민자 정체성의 가치를 발견한다.

디아스 데 레온(Díaz de León)의 ““과도적 공동체”: 통행하는 중미 이주민들이 신뢰 없이 어떻게 연대를 형성하는가(“Transient Communities”: How Central American Transit Migrants form Solidarity Without Trust)”라는 연구는 멕시코를 관통해 이주하는 중미 출신 사람들이 형성하는 일시적

공동체에 존재하는 고유한 문화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주 경험에 대한 공통된 이야기와 생존의 통찰력을 통해서 그들이 특유의 정체성과 연대감을 형성한다고 밝힌다. 상호 친밀감과 신뢰가 없을지라도 전략적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는 인간적 유대를 일시적으로 맺는다는 것이다. “멕시코를 통한 이주 과정은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도움을 받는 개별적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 간의 협력을 수반하는 집단적인 과정으로 변화하고 있다. 일시적인 공동체의 출현은 독자적 여행을 하는 이주민들이 궁극적으로 집단적인 인간 인프라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Díaz de León 2022:898).

고립과 경쟁이 아닌, 부분적이거나 생존에 필요한 도움과 보호로 이어지는 이러한 공동체는 『나 홀로』에서 보여주는 가족의 느슨한 확장 형태일 수 있다. 『나 홀로』의 대체 가족이 사모라에게 일어난 예외적인 행운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증언 서사는 보통 인도적 위기에 대한 윤리적 호소가 주된 목적이다. 그러나 『나 홀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생명력, 회복력, 연대감 또한 기록할 가치가 있음을 증언한다.

사모라는 아동 화자를 통해 매우 사실적이자 상상적인 서사 방식을 통해 증언의 진정성을 확보한다. 과거의 자아를 현재의 창작자로 수용함으로써 복원된 그의 여정은 그동안 관행적 지도에 대항하는 또 다른 카운터매핑의 효과를 만들게 된다. 궁극적으로 이 과정은 ‘나 홀로’라는 고통스러운 이주 방식을 증언하고 공동체의 위기를 알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주 서사를 둘러싼 증언의 역할과 그 논의를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

■ 참고문헌

- 베셀 반 데어 콜크 지음, 제효영 옮김(2023), 『몸은 기억한다: 트라우마가 남긴 흔적들』 (제 2판), 을유문화사.
- 소냐 나자리오 지음, 하정임 옮김(2006), 『엔리케의 여정』, 다룬.
- 제닌 커민스 지음, 노진선 옮김(2020), 『아메리칸 더트』, 쌤 앤 파커스.
- 존 베벌리 지음, 박정원 옮김(2013), 『하위주체성과 재현』, 그린비.
- 프란시스코 칸투 지음, 서경의 옮김(2019), 『선은 장벽이 되고』, 서울문화사.
- Antall, Richard(2023), “A trip made 'Solito': What a young immigrant's journey to the U.S. can teach us”
<https://angelusnews.com/arts-culture/solito-book-immigration/> (검색일:2023.6.10.)
- Arias, Arturo(2007), “Central American-Americans? Latino and Latin American Subjectivities,” *Taking Their Word: Literature and the Signs of Central Americ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84-200.
- Batzke, Ina(2019), “Concealing and Revealing in Life Narratives by Undocumented Authors”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08989575.2019.1592375> (검색일:2023.4.5.)
- Caminero-Santangelo, Marta(2017), *Documenting the Undocumented: Latino/a Narratives and Social Justice in the Era of Operation Gatekeeper*, Gainesville: University Press of Florida.
- Canelo, Maria José(2020), “Can the Undocumented Speak? Undocumented Immigrants and Self-Representation,” *American Studies Journal*, 69.
<http://www.asjournal.org/69-2020/can-the-undocumented-speak-undocumented-immigrants-and-self-representation/> (검색일:2022.10.25.)
- Caruth, Cathy(1996), “Traumatic Awakenings: Freud, Lacan, and the Ethics of Memory,” *Unclaimed Experience: Trauma, Narrative, and History*, Th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91-112.
- Díaz de León, Alejandra(2022), ““Transient Communities”: How Central

- AmericanTransit Migrants form Solidarity Without Trust,” *Journal of Borderlands Studies*, 37:5, 897-914.
- Fox, Killian(2022), “Javier Zamora: ‘Now the chances of me crossing the border and surviving would be slim”
<https://www.theguardian.com/books/2022/sep/10/javier-zamora-solito-interview-now-the-chances-of-me-crossing-border-and-surviving-would-be-slim> (검색일:2023.3.24.)
- Joseph, Adam(2022), “Javier Zamora’s Memoir ‘Solito’ is Unforgettable and Timeless”<https://www.goodtimes.sc/javier-zamoras-solito-is-an-unforgettable-and-timeless-memoir/> (검색일:2023.3.20.)
- Lacey, Schauwecker(2022), “Sight and Sound: Counter-mapping the U.S.-Mexico Border Crisis,” *Digital Humanities Quarterly* 3(6)
<https://www.digitalhumanities.org/dhq/vol/16/3/000626/000626.html>
(검색일:2023.8.15.)
- Linares, Albinson(2023), “‘Migrant children survive the horror’: Javier Zamora details his 3,000-mile journey to the U.S. in the award-winning ‘Solito’
<https://www.nbcnews.com/news/latino/migrant-children-survive-horror-javier-zamora-details-3000-mile-journe-rcna72084>
(검색일:2023.4.15.)
- Luiselli, Valeria(2019), *Lost Children Archive*, London: 4th ESTATE.
- Martínez, Óscar(2014), *The Beast: Riding the Rails and Dodging Narcos on the Migrant Trail*, Translated by Daniela Maria Ugaz and John Washington, New York: Verso Books.
- Moreiras, Alberto(1996), “The Aura of Testimonio,” in *The Real Thing: Testimonial Discourse and Latin America*, ed. by Georg M. Gugelberger, Durham: Duke University, 192-224.
- Nance, Kimberly A.(2006), *Can Literature Promote Justice?: Trauma Narrative and Social Action in Latin American Testimonio*, Nashville: Vanderbilt University Press.
- Pineda, Dorany(2022), “At 9, Javier Zamora walked 4,000 miles to the U.S. At 29, he was ready to tell the story”

- <https://www.latimes.com/entertainment-arts/books/story/2022-09-15/javier-zamora-on-his-harrowing-journey-from-el-salvador-to-the-u-s-at-age> (검색일:2023.3.1.)
- Reimann, Chloe Ruth(2018), “Crossing the Border into Poetry: Documenting the Undocumented and the Trauma of Migration in Javier Zamora’s “Unaccompanied”,” *Senior Projects Spring 2018*, 250.
- Roberts, Steven V.(2022), “A migrant child’s long journey to Gringolandia” <https://www.washingtonpost.com/books/2022/09/22/migrant-childs-long-journey-gringolandia/> (검색일:2023.4.2.)
- Rodríguez, Jesús A.(2022), “The Odyssey: Javier Zamora’s borderlands memories” <https://www.thenation.com/article/culture/javier-zamora-solito/> (검색일:2023.3.23.)
- Russell, Benjamin P.(2022), “Javier Zamora Carried a Heavy Load. He Laid It to Rest on the Page” <https://www.nytimes.com/2022/09/05/books/javier-zamora-solito-migration.html> (검색일:2023.3.20.)
- Villacencio, Karla(2022), “The Harrowing Migration Story of One 9-Year-Old Child” <https://www.nytimes.com/2022/09/08/books/review/solito-javier-zamora.html> (검색일:2023.4.3.)
- Webb, Laura(2019), “Testimonio, The assumption of hybridity and the issue of genre,” *Studies in Testimony*, 2. <https://studiesintestimony.co.uk/issues/volume-two-issue-one-2019/testimonio-the-assumption-of-hybridity-and-the-issue-of-genre/> (검색일:2022.10.5.)
- Zamora, Javier(2017), *Unaccompanied*, Port Townsend: Copper Canyon Press.
- Zamora, Javier(2022a), *Solito: A Memoir*, New York: Hogarth.
- Zamora, Javier(2022b), “My journey to the US at age 9 nearly killed me. As an adult, I had to face the trauma” <https://www.today.com/news/essay/solito-author-javier-zamora-trauma-rcna46846> (검색일:2023.3.25.)

❖ ABSTRACT

Javier Zamora's *Solito* as a Testimonial Narrative:
Meaning of Aloneness and Representation of
Sensory Memories

Lee, Euna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scrutinized the meaning and role of testimonial narrative in *Javier Zamora's Solito* through an analysis of its intended objectives, content, and narrative techniques. It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contextualizing this memoir within the sphere of testimonial literature, shedding light on the author's credibility as a witness, his literary accomplishments as a writer, and his reflections on aloneness. Specifically, it highlights the use of a child's perspective and voice as well as detailed sensory descriptions needed to serve both as a testimonial and healing literature. Through this analysis, this study looks at how the book transitions from being considered a 'testimonial' literature to find a place in the broader realm of 'literature' based on testimony.

The author exemplified multifaceted introspection as he employed sensory recollections to engage with his juvenile self and present interpretations of realities forged by tribulations of migration. Ultimately, he aspired to achieve harmony within himself as an undocumented immigrant, with his central American family, Latino community, and even within the larger American society. Finally, the author vividly encapsulated socio-historical circumstances and emotional-psychological landscape surrounding migration by realistically and imaginatively resurrecting sensory memories. These narrative techniques unveiled the potential for counter-mapping and

delineated border crisis on both individual and collective levels, thereby enriching the discourse on testimonial narratives in the context of migration.

Keywords: Javier Zamora, *Solito*, undocumented, testimonial narrative, Latino, border crisis, counter-mapping

■ 논문투고일 : 2023. 09. 10

■ 심사완료일 : 2023. 10. 10

■ 게재확정일 : 2023. 10. 11

